

## 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9.13~16)

### 1. 한국 정부의 ‘전략물자 수출입고시’ 관련

#### 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신화사 신매체(新华社新媒体)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의 ‘전략물자 수출입고시’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이라고 인용 보도<sup>1)</sup>
- o 한국 정부는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, 이르면 16일 이후 실시할 것임을 발표
  - \* 또한 일본 정부가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대화를 시작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임.
- 증권시보망(证券时报网)은 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인용 보도<sup>2)</sup>
- o 중국 외교학원 한중일 협력연구센터 苗吉 부연구원은 한일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역분쟁이 아닌 역사문제이며 안보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
  - \* 또한 무역분쟁의 관건은 반도체 산업이며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70%가 일본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기 때문에 이번 분쟁은 일본이 우세하다고 언급
- o 长城证券은 이번 분쟁이 계속된다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평가

### 2. 한일 분쟁 관련

#### □ [업계 및 시장 동향]

---

1) 「韩国或数日内将日本从“白色清单”除名」, 『新华社新媒体』(2019. 9. 15)  
2) 「日韩贸易冲突进一步升级 韩国将把日本踢出“白色清单”」, 『证券时报网』(2019. 9. 16)

- 중국경제망(中国经济网)은 한일 무역분쟁으로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일본의 제재 조치는 근시안적인 행위라는 전문가 분석을 보도<sup>3)</sup>
- o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陈凤英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근시안적인 행위이며 한중간의 협력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
- o 중국은 자체적으로는 시장 개척이 어려우나, 한국의 기술과 인적자원이 중국의 자금과 시장과 결합한다면 일본에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
- 심도해국(深度解局)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국을 선택하는 등 한일 분쟁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용 보도<sup>4)</sup>
- o 한국은 일본산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산 소재를 수입하고 일부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도 진행 중으로 점차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될 것이라고 보도
- o 일부 일본 기업들도 중국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도 고려중
- 중관촌재선(中关村在线)은 한일 분쟁의 영향으로 많은 일본 기업이 한국 내 영업을 우려하고 있다고 인용 보도<sup>5)</sup>
- o 일본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아사히글라스(AGC)의 한국법인이 내년 1월 전에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
- \* AGC는 중국 시장에 대한 사업 비중을 높이고 일부 분야는 제3국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
- o 한일 대립국면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최적 파트너가 될 것이며,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도

3) 「日本封锁韩国造就A股板块大涨 专家：中韩要共同研发」, 『经济日报-中国经济网』(2019. 9. 13)

4) 「日韩“火力全开”, 韩国将日本告上WTO, 同时中国成救命稻草」, 『深度解局』(2019. 9. 14)

5) 「日本AGC宣布退出韩国市场 将于2021年1月前完成」, 『中关村在线』(2019. 9. 15)

### 3. 기타

- CCTV 신문(央视网新闻)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한국의 일본행 관광객이 70% 급감했고 그 원인이 양국의 관계 악화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<sup>6)</sup>
- o 일본 매체를 인용하여 한국의 ‘보이콧 재팬’, ‘反아베 시위’ 등을 언급하고 최근 양국 관계가 가장 안 좋다고 보도

---

6) 「韩国民众中秋游不去日本 日韩关系堪称战后最差」, 『央视网新闻』(2019. 9. 15)